

‘정치범의 딸’ 가시밭길... 불굴의 의지로 꽃길 만들다



제1부-희망 찾기 탈북민 중국 무역 통역 도전 장순영씨

“자기야 사랑해♡♡”
탈북민 장순영(여·55)씨의 자기는 ‘대한민국’이다. 아픔 많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긴 순영씨를 보듬어 준 곳은 대한민국이었다. 그는 “눈물 많고, 아픔 많았던 저를 받아준 곳이 이 곳이다. 대한민국이 나의 자기”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젠 알겠니”로 시작하는 ‘박주희의 자기야’를 신나게 불러주었다.

대한민국 정착 14년째인 순영씨는 학습지(중국어)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경험이 다양하다. 이번엔 탈북민들이 세운 회사인 특장차 제조업체 ‘대한특장’에서 무역 실무에 도전한다. 중국에서 특장차 자재를 수입하는데 통역을 맡게 된 것이다.



중국에 학습지 교사로서 요양보호사를 거쳐 중국 무역실무에 도전하는 탈북민 장순영씨는 남한 생활에서 가장 기뻐던 게 ‘자기야’를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노동당 고위간부만이 승용차를 굴릴 수 있는 까닭이다. 순영씨는 이 애마를 몰고 전국을 질주하며 “대한민국 자기야! 사랑한다”고 외쳤다고 한다. /순천=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평양외국어대 입학 못하고 농촌으로 추방 새 아버지·남편 폭력에 삶의 희망 놓기도 중국선 말 못해 취업 꿈 접고 꽃제비 생활

2003년에 입국...2008년 순천에 터 잡아 방통대·심리상담사·대형운전면허 취득 한국어교원자격증 도전 ‘봉사하며 살 것’

울었다. 1년간 돈을 모아 남한행에 올랐다. 하지만 얼마 가지도 않아 중국 신장에서 배낭을 도둑맞았다. 거지가 돼 다시 산동으로 돌아왔다. 해군 출신 남자와 배를 이용한 남한행도 도전했다. 또 실패했다. 위험이 너무 컸다. 그래서 안전한 길을 찾았다. 브로커를 이용하는 방법이였다.

2002년 봄 중국 심양을 출발해 버마, 라오스, 태국을 차례로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태국에서는 탈북 동로 40명이 한꺼번에 경찰에 붙들려갔다. 생일파티를 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놀다가 이웃의 신고로 무더기로 붙잡힌 것이다. 어찌어찌 대사관과 연락이 돼 보석금을 주고 가까스로 풀려났다.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2004년 7월 마침내 인천의 하늘을 마주했다. 어렸을때 수재였던 순영씨는 배움에 목이 말랐다. 하지만 40대 초반에 하나원을 수료한 탓에 ‘탈북민 특례입학’은 불가능했다. 이듬해인 2005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겸하면서 방송통신대학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했다. 중국에서 살면서 배웠던 중국어가 기초가 됐다. 학비와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해결했다.

그녀의 열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교수가 중국어와 한자 실력이 뛰어난 그녀를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5~6년 동안 학습지 교사로 자리를 잡아가던 그녀는 ‘평생 직업’의 필요성을 깨닫고 순천제일대학 사회복지과에 다시 입학했다. 다행히 배웠다. 그래서 만 자격증이 10개에 달한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심리상담사·가정폭력상담사·대형운전면허 등. 지금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과 중국어 번역가에 도전하고 있다.

순영씨는 최근 탈북민들이 모여 경기도 김포에 설립한 특장차 제조업체인 ‘대한특장’에서 일하기로 했다.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의 성공 모델을 만들자’며 의기투합했다. 그녀의 임무는 중국어 통역이다.

순영씨는 4년전 아속했던 엄마를 한국으로 모셔왔다. 14살 때 헤어진 친아빠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고향에 남은 형제들도 보고 싶다. 그녀는 하루빨리 통일이 돼 온 가족을 ‘애마’(모닝)에 태우고 전국을 질주하고 싶단다. /순천=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할 말은 하라...자신을 믿어라...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라”

장순영씨의 남한 정착 3가지 조언

“무턱대고 잡는 게 능사는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장순영씨는 “처음엔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지금은 참지 말라고 한다”고 했다. 모르는 것이나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혼자서 끄덕이지 말고 바로바로 의견을 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고도 했다. 그녀는 “탈북민은 처음에 남한에 오면 자본주의 실상에 어두워 다단계 등에 쉽게 현혹당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며 “사회주의와 달리 노력 없이 쉽게 들어오는 소득은 없기 때문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을 하면서 계획하면서 살라”고 조언했다.



“자기만의 강점을 내놓으라”고도 했다. 남한사회에서는 노력한 만큼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순천=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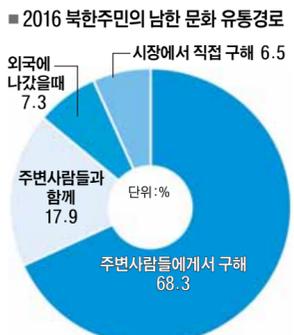
서울대 연구원, 북한 주민 통일외식 조사

“남한 문화 자주 접할수록 통일 빨라지고 이익 클 것”

북한주민들은 남한 문화를 자주 접할수록 통일이 빨리 오고 이익도 클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학술지 ‘통일과 평화’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선임연구원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탈북민(조사 연도의 직전 해 탈북) 총 798명의 설문자료로, 이들이 북한에서 남한 문화를 경험한 빈도와 당시 예상한 통일 시기 및 이익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북한주민의 지난 5년간 남한 문화 접촉 빈도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남한 문화를 전혀 접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4.3%에서 10.2%로 큰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김정은 시대의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중국 밀수와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남한 미디어의 유입과 지역간 이동이 증가, 남한 문화 경험이 증가했다고 해석된다.



정 선임연구원은 통일이 빨라지고 이익이 클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통일이 자기 자신과 북한 사회에 이롭다고 인식할 확률도 각각 35%, 5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 방식에서도 자주 접한 사람이 남한체제로의 통일을 원할 확률이 4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선임연구원은 “남한 문화를 자주 접하는 것이 북한주민의 긍정적인 의식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에 남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하나원 교육 탈북민 맞춤형 개편 생애설계 과정 신설·선택과목 시수 늘려

하나원 탈북민 교육프로그램이 교육생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모든 교육생이 듣는 공통과목 시수를 1주일 줄이고, 대신 개인별로 듣고 싶은 선택과목 시수를 1주일 늘린다. 특히 탈북민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애설계(Life-Plan) 과정을 새로 편성·운영한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탈북민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탈북민 성인반 교육은 10주의 공통과정과 2주의 선택형 특화교육과정으로 편성됐다. 모든 교육생이 듣는 공통과목 시수는 1주일 줄이고, 선택과목 시수는 1주일 늘렸다. 또 컴퓨터 수업, 건강한 마음관리 수업, 언어 수업(외국어·인어문화 등)도 교육생 수준별로 2~3개로 분반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반은 국어·영어·수학 기초학력 진단을 통한 수준별 분반 수업을 진행한다. 중국 출생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도 시행한다. 탈북민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애설계 과정을 개설한다. 재무·취업·가족 분야는 공통으로 운영하며 학업·건강관리 분야는 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하나원은 교육생들이 사회에 먼저 정착한 선배 탈북민 등과 교류하면서 학습하는 사회통합형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선배 탈북민들의 정착사례 특강 배정시간을 지난해 8시간에서 올해 10시간으로 2시간 늘리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